

'이름 모르는 꽃'의 기억 윤석남전

금호미술관, 6. 8~14

글/서성록(미술평론가)



▶ '죽보',
나무+아크릴+
화선지,
250×270cm,
1993.

사진/박로만 기자

▶ 전시장 전경



사진/박로만 기자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미술계에 '여성주의'라는 이름이 나돌고 있다. '여성주의'란 예술의 근본적인 조건을 의문시하는 저항운동으로 읽힌다. 여기서 '근본적인 조건'이란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야기된 성차별, 즉 '이방인'으로서의 여성의 불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좁게는 여성해방운동이지만 넓게는 인간해방운동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

윤석남은 앞에서 말한 여성주의 시각에 꼭 들어맞는 작가일 뿐더러 그 관점의 윤곽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작가다. 그의 화력을 들추어보면 그의 작품세계가 여성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점철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6년 시월모임 주도의 '반에서 하나로'전, '87년 '여성과 현실'전, '88년 '또 하나의 문화'와 공동작업으로 열린 '여성해방사와 그림의 만남'전, '92년 제6회 '여성과 현실'전의 참여는 그의 일관된 시각을 드러낸다.

하지만 그의 여성주의 시각은 계급 중심의 틀 속에서 배태된 것이고 민중운동의 '계급해방'과 맞물려 있는 홍보 노리개로 제작되었던 까닭으로 지배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과 공격, 분노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모든 남성을 '적'으로 몰아세우거나 모든 여성(특히 근로여성)을 '동지'로 구분짓는 이분법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과포화 상태의 이념으로 인해 작품 자체도 그의 생각에 동화될 수 있을 만큼 큰 호응력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말하자면 그의 실천적 행동양식이 예술적 의지보다 앞질러갔던 것이고 그 결과 선명성은 크지만 호응력이 작은 작품을 생산해냈던 것이다.

이번 작품전은 이러한 그의 흠집을 말끔히 씻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눈'이란 테마를 갖고 열린 이번

작품전은 한국 여인의 애환을 열린 시각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의 작품에 드러난 한국여성의 상이란 '성녀=어머니'로 등식화되어온 하나의 가상에 다름아니다. 모성이란 이름 아래 회생을 감수해야 하고, 원 안에 갇혀있어야 했던 어머니의 불행한 모습은 비단 한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여성의 공동운명이었음을 여지없이 과해진다. 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가사에 시달려 비틀어진 손, 대못박힌 가슴 속에 흥건히 고인 피멍 등을 아랑곳하지 않았던 여인의 비극이 아로새겨져 있다.

'억압'과 '희생'의 대명사같은 존재로 불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현실세계에서 여성을 '이름 모르는 꽃'으로 미화해왔지만 윤석남의 눈에는 쇠면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여성들에게 걸어놓은 쇠면은 마땅히 풀려야 할 것으로 형상화된다. 여성을 미화하면 할수록 그들이 거머쥔 온당치 못한 삶을 합법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여성은 자연히 희생의 심벌로 개념화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윤석남은 '개념과 경험의 일치'라는 예술적 힘으로 분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에 대한 의식(개념)을 일상생활의 고초를 상징하는 기표(빨래판, 판자, 여공, 행상의 이미지)와 결합시킴으로써 그의 작품을 보다 강력한 여성주의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여성문제에 대한 모순인식이며, 남녀의 성대결같은 생리적 차원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이라는 그 엄연한 성 구분이 인간문제로 다루어질 때 비로소 이 미술의 이슈가 구속력을 갖게 될 뿐더러 그와 얽힌 미학, 미술사의 문제도 새롭게 재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